

이사회 제식구 감사기에 인권유린 지속



사라지지 않는 '도가니' 보육시설 고아들이 운다

<중> 2차 피해 양산하는 '침묵 카르텔'

광주 YWCA 산하 S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최소 5명 정도의 '고아소년'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정황이 지난 7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광주시, 동구청, 광주 YWCA는 인권위로부터 여자 보육원생을 확대한 시설 장에 대해 해임 및 관리·감독 강화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도 묵살했다.

3개월여 만인 지난 25일야 광주 YWCA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열고 보육시설에 원장에게 내린 1달 직무정지 징계도 '제 식구 감사기식'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의 해임권고를 무시하고, 원장에게 1개월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절반이 원장과 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광주 YWCA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소 업무 등을 통해 접촉이 많고 친분까지 쌓이면서 그들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주장이다. 고아소년들에게 가해진

해임 권고 목살 1개월 직무정지 조치

물의 빛은 원장 솜방망이 처벌

연간 수익원씩 보조금 받고도

국가·지자체 감시장치 작동 안해

권고만 남발 인권위 무관심도 한몫

인권유린마저 이들의 '카르텔' 앞에서 무참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 YWCA의 한 관계자는 "조직 종사자와 이들을 감사하는 이사회 구성원, 그리고 지원금을 주는 자치단체 관계자 등은 지역 사회의 여론상 대부분이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들에게 보호자 한 명 없는 고아소년의 절규보다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원장의 말이 더 와 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동구에 따르면 S보육시설에서 영·유아 13명, 초등학생 7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8명 등 총 43명이 지내고 있다.

생활지도사 등 시설 종사자는 22명이다. S보육시설은 광주시와 동구청으로부터 2016년 10억1900만원, 2017년 10억4000만원, 2018년 9월까지 8억5100만원 등 총 29억1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시설이 올해 9월까지 지원받은 금액을 살펴보면 생계비(예방접종비 등) 명목으로 9000만원, 운영

비(공과금, 식비, 의료 등) 7억3900만원, 기타(운동, 잡고서 비용 등) 2200만원 등 8억5100만원이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올 연말까지 시설에 총 12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매년 수익원대의 보조금을 주고받다 보니, 자치단체와 시설의 관계도 끈끈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설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또 조직을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이사회도 대부분 제 식구들로 구성돼 있다보니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현재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에서 5명의 법인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 등 총 7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4명은 광주 YWCA 대표, 광주 YWCA 사무총장, 광주YWCA 이사 등으로 YWCA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사외이사 역시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이사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원장에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배경과 그들만의 카르텔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광주 YWCA 내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이사 대부분은 현 YWCA 명예이사이자 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학연·지연 등 친분으로 끈끈하다. 이사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내부적 카르텔도 문제지만, 법적효력이야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 등은 뒷전인 채 권고만 남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관심한 행태도 문제다. 인권위의 권고조치 후 고아소년들은 되레 내부 고발자로 적혀 2차 피해 등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장애학생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

사회복무요원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 진상조사 촉구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시교육청 기자회견

사회복무요원의 광주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의혹(광주일보 2018년 10월30일 6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말쭙하게 학교에 갔던 자녀가 다쳐서 돌아온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닌데, 아이 몸이 불편해 왜 다쳤는지 대담조차 들을 수 없다"며 "최근 모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폭행의혹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학생 행동수정방법에 관한 고민을 시작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장애를 알고 있어의 사표현은 여의치 않지만 학생 일부가 의도치 않은 과격행위를 할 경우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빚어

질지 모를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급우나 교사 등을 물어뜯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본인은 물론 주변 학생, 교사가 다치거나 자칫 이틀간 폭행 의심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일 종종 생겨나고 있다.

광주 한 특수학교에서는 지난 9월 7일 초등부 학생(5년·16)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철제 비누 보관대에 머리를 부딪쳐 2바늘을 꿰맸다. 학교 측은 애초 "혼자 넘어졌다"고 학부모에게 알렸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양치질을 돕던 사회복무 요원과 충돌로 다쳤다고 말을 바꿨다.

시교육청은 매년 학기별 실태조사 및 직원 대상 인권연수를 시행하고 특수교육 실무자 증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호 기자 khh@

전남대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 광주 이전 놓고 찬반 대립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의 광주 캠퍼스 이전 문제를 두고 학생과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 학생회는 2일 오후 1시 이순신광장에서 광주캠퍼스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특수 교육학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전공수업을 위해 하루 4시간 여수와 광주를 오가야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 당했지만 인내해 왔다"며 "특수교육학부 이전 문제는 캠퍼스 공동화 현상이나 지역사회의 여론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등은 인구감소와 인재 유출, 지역경제 약영향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학부의 광주 이전을 반대한다.

배석중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장은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되면서 여수캠퍼스 학과가 주는 등 결과적으로 지역경쟁력이 약해졌다"며 "여수캠퍼스만의 특성화학과인 특수교육학부의 이전 추진은 여수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서 첫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감기 조심하세요"

광주에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일 "최근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10월 마지막 주에 수집된 호흡기환자 표본검체 40건 중 3건의 검체에서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광주지역 첫 검출 시기보다 3주 빠른 것으로, A(H1N1)pdm09형으로 국내에서 흔

하게 발견되는 유형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이며 주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된다. 1~4일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전신쇠약감, 인두통, 코막힘, 기침 등 증세를 보인다. 어린이는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답답할 땐 신문이 답입니다!



요즘 눈길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 알아야 할 모든 것 신문에 있습니다.

답답할 땐 신문을 보세요! 신문이 답입니다.

한국신문협회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4 달몰림 00:42
해질림 17:37 달일출 14:37

한낮 포근해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서리 내리는 곳 있겠음.

광주	맑음	5/18	보성	맑음	1/17
목포	맑음	7/18	순천	맑음	5/18
여수	맑음	9/17	영광	맑음	3/18
나주	맑음	2/19	진도	맑음	2/17
완도	맑음	8/18	전주	맑음	3/18
구례	맑음	1/18	군산	맑음	3/17
강진	맑음	2/19	남원	맑음	0/18
해남	맑음	0/18	흑산도	맑음	12/17
장성	맑음	3/18			

◇바다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서)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06	08:54
	14:16	21:47
여수	10:18	04:28
	23:34	17:03

◇주간날씨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
☀	☀	☀	☁	☁	☁	☀
6/19	7/19	7/19	9/18	9/18	9/17	8/18

◇생활지수

- 뇌졸중: 보통
- 뇌출중: 보통
- 감기: 보통
- 미세먼지: 한때 나쁨